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780호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산업]
현대차 '캐스퍼'
화려한 신고식
1.9만대 최다 계약
08

[라이프]
동원그룹
수산업 넘어
축산업 도전장
L1

신규 주택 年 8만호 공급… 골목상권 육성 등 48.7조 투입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

2030년까지 78개 과제 추진
주거·일자리·교육·복지 초점
25개 자치구 수변 환경 개편
글로벌 유니콘기업 40개 육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사람과 기업의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면서 "서울비전 2030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정한 2030년까지의 미래상은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안심 도시 ▲미래 감성 도시다.

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지향 아래 16대 전략 목표, 78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되살린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 연평균 8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들의 재능을 직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상권 100개를 로컬 브랜드로 육성하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자리 사다리를 만든다. 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울런' 구축을 완료해 교육 사다리를 세우고,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벌여 복지 사다리를 견고히 한다.

시는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양질의 기업환경 조성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기기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시는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품격높은 도시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광화문 일대 의정부지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회복한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 흐르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지천 르네상스'로 시민들이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 공간을 바꿔 나간다.

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 구현에 오는 2030년까지 48조6888억원을 투입한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오 시장은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세출 구조조정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합치면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서울비전 2030'이 장밋빛 상상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의 수동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시경쟁력을 선점할 수 없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비전만이 서울의 명확한 미래를 담보한다"면서 "서울의 미래비전은 공정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도시 미래 모색… '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장정
53개국 112개 도시 190명 작가 참여
주제전·도시전·협업 작품 등 마련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시 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서울비엔날레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엔 53개국, 112개 도시, 190명 작가, 40개 대학, 17개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DDP에서는 '주제전'과 '도시전' 등 유료 전시가 열린다. 주제전은 '크로스로드'에 대한 작가적 해석을 담은 전시로 '도시 기능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성(회복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떤 건축 행위가 도시에 적합한 인프라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까?'와 같은 물음을 던진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건물'을 설계한 톰 메인,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센터'를 지은 렌초 피아노의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도시전에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핵심 공간인 도시와 건축의 역할을 탐구한다. 건축에 가상의 세계를 접목시킨 건축물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만든 이토 토요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는 무료전시인 '게스트시티전'과 '서울전'이 운영된다. 시가 초청한 작가와 도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전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세운상가 일대에서는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주제로 건축가와 문학 작가가 협업한 다섯 개의 구조물을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5시부터 '라이브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다. 추석 연휴인 9월 18~22일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추석 연휴 대중교통 막차 연장 안한다

서울시, 특별교통대책 가동

서울시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과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에는 시내 유동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 운행할 계획이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터미널 내에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를 설치해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 대응인력 심리검사 등 지원

안마·명상 등 힐링 프로그램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대응인력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와 연계해 안마, 네일아트 특강, 명상 같은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심리검사와 집중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서비스도 추진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힐링콘서트도 연다. 가수 미미시스터즈와 옥상달빛이 특별 출연해 코로나 대응인력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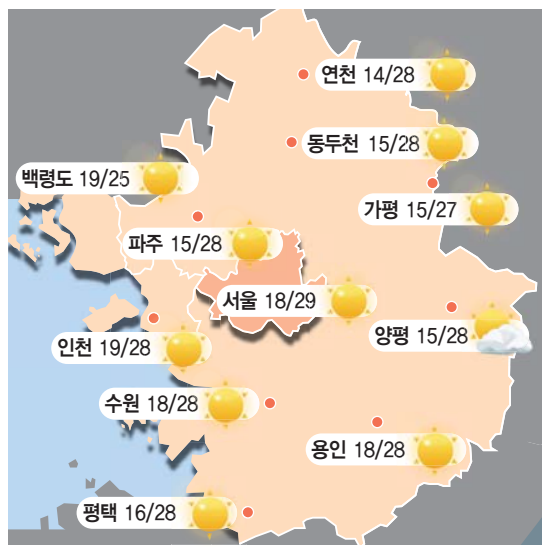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5 | 해짐 / 18:39

9월 16일 (木)
음력 : 8월 10일

수도권 날씨 18~2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국방정보국장 "최우선 위협은 중국… 다음은 북한" /사진 뉴시스
▲ 美 원조기구 MCC, 북한 지원후보국서 제외… '인신매매' 이유

▲ 日 스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日 총리 후보 다카이치,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韓, 부정확한 정보 발신"

▲ 탈레반 "테러단체와 관계 끊을 것"… 협정 이행 약속
▲ 아이티 총리, '대통령 암살' 기소 위기처하자 검사 해임 /사진 뉴시스